

정례브리핑

2020.3.23(월)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장관관 주요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은 3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코로나19 방역협력 의사를 밝혔는데, 한국 정부의 대북 방역협력에 대한 입장은 기존과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통령께서 삼일절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서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으며, 이러한 연장선에서 저희도 방역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의 건강·생존권과 직결되는 인도적·호혜적 협력이라는 점에서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코로나19 관련 국

내 상황이나 북한 상황, 북미 간 동향 등 국제사회 지원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방역협력 관련해서 입장을 따로 통일부에 전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남북 간, 그러니까 북한의 지원요청이나 남북 협력 관련 구체적 논의는 없었습니다.

<질문> 일부 매체가 북한이 국내 단체를 통해서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통일부가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통일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염병 협력, 남북 간 그런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늘 계속 저희도 인정하고 강조하고 있는 바이고요. 다만, 국내 민간단체들이 정부 측에 대북지원 절차나 기금신청을 위한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 문의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을 위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료 관련이라든가 의료물품에 대해서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것 하나만 하더라도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항상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운신의 폭이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넓어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방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먼저 제안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미 간 친서 교환으로 그런, 정상 간 친서가 교환된 것 자체는 저희 정부로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코로나19 관련 방역협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향후 국내 상황이나 북한 상황, 그런 국제사회 지원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얘기하셨던 요건을 갖춰서 신청한 단체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 요건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갖추지 못한 건지.

<답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재원이라든가 물자 수송경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